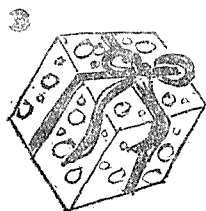


# 이것이 「무서운 병」이다



## ■ 權 彞 赫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아직도 「말라리아」

「무서운 병」이란 결국 사람을 사망케 하는 병을 말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에 으뜸가는 병은 아직도 「말라리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가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사인(死因)의 수위를 전지하고 있다. 「말라리아」가 「아노렐레스」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푸라스모디움」이란 병원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한편 「말라리아」와 영양불량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 두가지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되어있는 사실이다.

한때는 전염성 질환이 대단했다.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 결핵, 일본 뇌염, 홍역, 천연두 등은 대표적인 질병들인데 이들중 몇가지는 오늘날에도 크게 창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예방과 구축이 주요과제로 되어있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이러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는 「박테리아」, 「리켓치아」, 「바이러스」등 세가지가 주로되는데 이들의 특성이나 분포 양상은 가지 각색이며 분류에 있어서도 다양한 면을 보이는 까닭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다.

### 기생충 질환 피해는 막심 곰팡이등 식물성 기생체도

이러한 병원체외에도 동물성 기생체와 식물성 기생체가 문제되기도 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소위 기생충성 질환이 중심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기생충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상 기생충 때문에 우리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는 막심한 바가 있으며 많은 노동력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식물성 기생체로는 곰팡이 종류를 들수 있는데 너무 전문적으로 되기쉬운 까닭에 여기서는 언급을 피한다.

### 환경 위생 과도 깊은 관련 장티프스·콜레라등도 모두

이상에서 지적한 전염성 질환은 일찌기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류에게 공포와 피해를 주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해아릴 수 없는 많은 인명(人命)을 앓아왔던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인류는 이러한 질병에 대하여 싸움을 해왔고 또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인구에게 이들 질병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주고있다.

이들 질병중에는 환경 위생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장티프스나 콜레라 같이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의 예방에는 환경위생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가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하는 질병은 일반적으로 직접으로 전파를 타는 특성을 가지며 게아무리 환경 위생 상태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것이 근본대책으로는 되지 않으며 면역(免疫)증강이나 환자격리등이 예방책으로 된다.

어쨌든 많은 전염성 질환이 아직도 무서운 병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들에 대한 인류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다.

### 많은 나라의 사망률 1·2위는 암과 심장병이다

한편 많은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악성종양(腫瘍)과 혈관, 순환기계 질환이다.

즉 암이나 심장병 또는 고혈압증을 말하는 것이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전하였지만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암이나 심

장병이 사인의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리한 현상이 뚜렷해가고 있는데에는 이론(異論)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많은 과학자가 이들 질병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 때문에 죽어가는 인구의 수는 늘어가고만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 목숨 빼앗아가는 무서운 적은 문명이 원인이 된 각종 사고

질병이라고 할수는 없었지만 요사이 인명을 앓아가는데 있어서 주요 원인으로 되는 것에 사고(事故)가 있다.

각종 문명이기의 발달은 예상외로 많은 사고를 산출했으며 그 빈도와 피해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고는 가장 주요한 사인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다.

한마디로 사고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다기(多岐)하고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자동차사고, 열차사고, 비행기사고, 해운사고등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가정사고, 직장사고 등 허다한 종류가 있다. 대상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고 있어서 오늘날 「안전교육」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에는 그만큼 이 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필자=서울의대 학장·의박>

### ■ 기생충 박멸표어

회충을 없애자

—한국기생충박멸협회—